

투데이

‘4·3 강풍’ 전남 재산피해 60억 육박

수산 보상길 막막... 피해어민 어찌나

피해액 지역마다 최소 14억 넘어야 보상
농업 분야는 재해 기준치 넘어 복구지원

최근 전남지역에 불어닥친 ‘4·3 강풍’으로 56억원대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농업 분야는 어느 정도 피해보상을 받지만, 수산 분야는 보상받을 길이 막막해 피해어민들이 애만 태우고 있다.

8일 전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집계한 강풍 피해액은 비닐온실 등 농업시설 파손 45억3000만원, 수산시설 11억원 등 56억3000만원이다. 나주와 담양, 해남 등 15개 시·군에

을 경우 복구비는 피해액의 35%를 보조해주고, 남은 피해액 중 50%는 1.5% 이율로 대출해준다. 또 농작물 피해율이 100%면 타 작물을 심을 수 있는 비용과 농약비, 경우에 따라 월 70만원가량의 생필비도 지원해준다. 50%의 농작물 피해는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재해보험에 가입된 농가는 피해액의 80%의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양 20억원, 나주·영암 26억원, 목포·순천 32억원, 여수·광양 38억원이다. 이번 피해는 대부분 이 기준을 넘지 못해 복구비 지원이 힘들고, 어선 파손도 경미해 선주들이 직접 고쳐야 한다. 반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된 어가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계급장 떼고 얘기합시다”

강시장, 간부공무원들과 10시간 ‘브레인스토밍’

“계급장 떼고, 허심탄화하게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강운태 광주시장이 주말인 지난 7일, 시청 회의실에서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무려 10시간에 걸쳐 시청 4~5급 간부 공무원 90여명과 마라톤 회의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총인사실 입찰 비리를 비롯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지난 몇 달간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은 물론 공직자 청렴도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강 시장이 직접 제안해 이뤄졌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참석한 공무원 한 명 한 명이 직접 자신의 제안내용을 발표한 뒤 이에 대한 집중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숲맑은쌀’ ‘한눈에반한쌀’ 등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

담양에서 생산되는 ‘대숲맑은쌀’ 등이 ‘2012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11개 시·군의 17개 쌀 브랜드를 대상으로 2개월의 평가 기간을 거쳐 10개 브랜드를 선정했다.

랜드인 ‘달마지쌀골드’ ‘녹차미인보쌈쌀’ ‘나비쌀’ ‘프리미엄호랭이’, ‘한눈에반한쌀’ 등이 뽑혔다. 또 ‘한눈에반한쌀’이 10년 연속, ‘프리미엄호랭이’ 7년 연속, ‘나비쌀’과 ‘사계절이사는집’이 6회 연속, ‘녹차미인보쌈’과 ‘하늘아래한쌀’이 5회 연속 선정됐다.

순천시장 보선 금품살포 혐의 檢 수사 착수

4·11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순천시 보물길정기과 과열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모 후보 측의 금품 살포 혐의가 포착돼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출마한 A후보 측으로부터 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해 3회에 걸쳐 7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조모와 문 모씨를 각각 불려 조사했다.

거인 명단 10장을 A후보 측 김모씨에게 제출하고 7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김씨로부터 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 사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김씨 집을 압수 수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1800여명이 기록된 명단을 확보해 선거관련 여부를 확인 중이다. A후보 측은 김씨에게 선거인단 모집을 부탁한 적이 없으며 또 선거인단 명단을 받고 70만원을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여수엑스포 가는 길 수월해 졌어요”

여수~순천 자동차전용도로 12일 개통...30분내 주파

여수~순천 자동차전용도로(38.8km·국도 17호선) 전 구간이 완공돼 여수세계박람회(5월 12일~8월 12일) 찾아가는 길이 더욱 수월해졌다. 국토해양부는 8일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에서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까지를 잇는 여수~순천 자동차전용도로를 12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스포 행사장으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 근처 산업단지를 오가는 트럭 때문에 교통사고가 잦았던 기존 국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 조만간 목포~광양 고속도로와 여수~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가 개통되면 여수~순천~광양을 연결하는 광역 도로망이 완성돼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다. 개통행사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박준영 전남지사,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선관위에 제지 당하는 대학생들

지난 7일 광주시 동구 금남공원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4·7 거리콘서트’를 개최한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건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는 내용의 유인물을 나눠주려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로부터 제지당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출판기념회 인원 동원 명목으로 1500만원을 불법 지급한 A씨와 A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요구한 B·C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또 C씨로부터 기부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 김종식 서구청장 엄중경고

박근혜 동행 총선 특정후보 지지발언

광주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대위위원장 광주 방문 당시 동행해 총선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김종식 광주 서구청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의무위반으로 엄중 경고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달 30일 박 위원장이 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는 자리에 동행해 모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북구 선관위도 이날 모 후보의 선거사무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 60여 명에게 199만여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후보 지지발언을 한 D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허위부재자 신고 등 4명
전남 선관위, 검찰 고발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 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해 허위 신고한 안도지역 요양원 관계자 A씨 등 2명을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요양원 입소자 61명의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와 함께 음식물을 제공한 나주지역 특정후보 선거운동원 B씨 등 2명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B씨 등은 지난달 25일 선거구민 9명을 모아 놓은 뒤 음식을 제공하고 후보 배우자를 초청,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

MBA / Law School 獎學生 第3期生 募集

經濟 與件 어려워도 世界 頂上 水準을 向해 꿈을 펼칠 靑年! 찾습니다

民族의 大望 實現은 人材 輩出에서
- 碧峯(벽봉)獎學會 設立에 부치는 마음 -

本人은 碧峯이란 號를 가진 大韓民國 國民의 한 사람으로서, 韓國에서 태어나 現在는 日本에 居住하고 있는 在日僑胞입니다. 異國에 살면서 恒常 생각했던 점은 祖國이 國際社會에서 尊敬받고 榮光스러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過去 우리 民族은 견디기 어려운 酷毒한 屈辱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다시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祖國을 더욱 繁榮시키고 富強한 國家로 發展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祖國이 國際社會에서 尊敬받아야 하며 正心성의 面에서도 높은 評價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民族의 크나 큰 希望을 確實하게 또한 빠른 時日內에 達成하려면, 國際的으로 活動할 有能한 人材의 輩出이 가장 時急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本人은 本人의 所信에 따라 지금까지 Business 世界에 獻身하여 왔고, 이제는 國際的인 感覺을 지니고 國際社會에서 堂堂하게 活躍할 靑年을 育成하는 事業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비록 적은 힘이나마 이 事業에 盡力하는 것이 本人이 民族을 爲해서 할 수 있는 最上의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趣旨에서 碧峯獎學會를 設立, 2009年 學期부터 民族의 尊嚴을 드높이는 獎學事業을 具體的으로 推進하고 있습니다. 本人의 뜻이 비록 큰 바다는 작은 물 한방울에 지나지 못할지라도 民族과 祖國의 發展에 보탬이 되면 더 없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碧峯獎學會의 趣旨이며 精神입니다.

獎學會 創立者 碧峯

- 選拔概要
○ 募集人員 : 年間 3명(MBA 2명, Law School 1명)
○ 獎學金
- MBA는 1年에 美貨 \$40,000(2년간 \$80,000)
- Law School은 1年에 美貨 \$40,000(3년간 \$120,000)
○ 應募資格
- 美國 上位 10位圈內 大學의 MBA 또는 Law School 課程에 合格한 者
- 大學 全學年 成績이 平均 B學點 以上인 者
■ 提出書類
○ 履歷書 ○ 大學 成績 證明書 ○ 保護者 및 世帶主의 所得(納稅)證明書
○ MBA 또는 Law School 合格證 ○ 指導教授 또는 職場上司의 推薦書
○ 自己紹介書(進學動機 및 將來의 希望, A4用紙 3매 以內)
※ 모든 英文 書類는 韓國語 翻譯本을 添附 바랍니다.
■ 接受處
○ (우편번호110-776) 서울特別市 鍾路區 慶雲洞 89-4 SK허브 101-713號 統一日報社 서울支社內 碧峯(벽봉)獎學會
■ 接受期間 및 銓衡方法
○ 接受期間 : 2012年 4月30日 ~ 5月4日(登記郵便은 5月4日 到着까지 有效)
○ 第1次 전형 : 書類審査(1次 合格者에 限하여 2次 전형 日時와 場所를 通知)

- 第2次 전형 : 選考委員 面接(5月10日 實施 豫定)
○ 第3次 전형 : 選考委員會에서 最終 選定者 確定
○ 最終合格者 發表 : 2012年 5月11日 豫定
■ 其 他
1. 獎學生 選拔은 德望있는 분들로 構成된 選考委員會에서 客觀的으로 進行되며, 提出된 書類는 返還하지 않습니다. 獎學生 募集과 關聯한 自世한 事項은 碧峯獎學會의 홈페이지(http://blog.daum.net/lkh3849)를 參照하시거나, 서울事務所 李光衡 事務所長 (☎ 02-725-4161, lkh3849@hanmail.net)으로 問議하시기 바랍니다.
2. 支給되는 獎學金은 辨濟義務가 없습니다.
3. 家計에 餘裕가 있는 家庭의 子女분 혹은 他 獎學金 申請이 가능한 學生은 應募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計가 어려운 學生으로서 또 強한 向學心을 갖고 使命感에 넘치는 靑年을 當 獎學會는 應援하고자 합니다.

- 【제1기 必勝장학생】
● 조근호 (Columbia Law School)
● 김재민 (Harvard Law School)
● 최유진 (Cornell Univ. Law School)
● 우재영 (The Univ. of Texas at Austin MBA)
● 강혁민 (U.C. Berkeley Haas MBA)
【제2기 必勝장학생】
● 박성협 (Harvard Law School)
● 조태호 (Univ. of Michigan Law School)
● 유영호 (Wharton School MBA)
● 배석진 (Univ. of Chicago Booth MBA)

碧峯獎學會

會長 김현중 (전 통상교섭본부장, UN대사)